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출하 '뚝'... 재고는 '쑹'

호남통계청 1월 산업활동 동향
경기둔화·내수 부진 등 직격탄
생산 광주 1.6%·전남 10.3% ↓
전남 건설수주액 44.6% 감소

글로벌 경기 둔화,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산업계가 침체 국면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해 첫 지역 산업활동 동향 결과, 자동차를 비롯해 전기장비, 섬유제품, 화학제품, 1차금속 등 주력 업종의 생산 실적이

줄어들었고, 전남지역의 경우 건설업계 수주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1월 대비 1.6% 감소했다. 기계장비, 담배, 전자부품 등 업종에서는 생산이 늘었으나 전기장비(-29.2%), 자동차(-6.3%), 섬유제품(-22.4%) 등 업종에서의 감소 폭이 컸다.

광주 광공업 출하도 전기장비, 기계장비, 담배 등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 같은 달 대비 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광공업 재고는 전

년동월대비 3.3% 증가했다. 재고는 전기장비, 전자부품, 고무·플라스틱 등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 1차금속, 음료 등이 증가했다.

지난 1월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3%나 낮아졌다.

석유정제, 금속가공, 자동차 등 업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화학제품(-14.4%), 1차금속(-6.8%), 기타운송장비(-23.3%) 등 업종의 생산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광공업 출하도 화학제품, 기타운송장비, 1차금속 등 업종의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7.3% 줄었다.

건설수주액은 광주는 늘고 전남은 줄어드는 등 두 지역간 희비가 엇갈렸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지난 1월 광주지역 주요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은 5894억원으로 지난해 1월 대비 203.1%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17조4912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그쳤다. 민간부문에 있어 부동산업, 금융·보험·서비스 등의 수주 증가로 222.1% 늘어난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 정부 등의 감소로 73.2% 줄었다.

반면 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3402억원

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4.6%나 떨어졌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에 그쳤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 등의 수주 증가로 123.6% 늘었으나 민간부문은 철강, 부동산업 등의 감소로 88.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월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6.4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했다. 백화점 판매는 1.0%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 판매는 5.2% 증가했다.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112.3로 전년동월대비 3.0% 올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기아, 전기 SUV 'EV9' 티저 이미지 공개

기아가 'The Kia EV9' (이하 EV9)의 공개에 앞서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2일 선보였다. EV9은 기아가 2021년 출시한 EV6에 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두 번째 전용 전동화 모델로, 전동화와 지속가능한 브랜드로의 변화를 이끌 플래그십 SUV다.

EV9의 차명은 기아의 전용 전기차 명명 체계에 따라 전기차를 의미하는 'EV'와 전용 전기차 라인업에서 플래그십의 위치와 역할을 상징하는 숫자 '9'을 더해 정해졌다. 이날 기아가 공개한 이미지와 영상은 차량의 실루엣과 함께 전·후면부에 적용한 다양한 조명의 모습을 담고 있다.

실루엣을 통해 드러난 EV9은 긴 휠베이스를 통해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

음을 짐작케 하며, 전폭과 전고 등 차체 비율이 정통 SUV 형태를 띠고 있어 전동화 SUV로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전달할 것을 예고한다.

전면부는 내연기관의 그릴이 있던 자리에 위치한 깔깔한 면 위로 여러 개의 조명이 빛을 밝히며 헤드램프와 조화를 이뤄 첨단 기술이 고도화된 가까운 미래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후면부는 차량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한 리어램프가 차폭을 한층 더 강조하며 당당한 인상을 부여하는 동시에 전면부와 통일감을 준다.

이달 중순에는 EV9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달 말 온라인 행사를 통해 세부 상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광주은행, 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복구와 업무협약 체결
총 8억5000만원 규모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 북구청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염규승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복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불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8억5000만원의 '복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재창업자인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한 대출 취급 후 1년간 북구에서 6.0%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광주은행은 최대 1.0%p까지 대출금리를 특별감면할 예정으로, 1년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 북구청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복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주은행 제공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 염규승 부행장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 발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광주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총 1억8000만원을 특별출연해 총 166억 원을 지원했다.

최권범 기자

현대차, 10년만에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12일까지 접수

현대차가 10년 만에 기술직(생산직) 공개채용에 나선다.

현대차는 이번 채용을 '모빌리티 기술 인력 채용'으로 규정하고, 차량 전동화 및 제조 기술 혁신 등 산업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 성별의 제한은 없다.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이어야 한다.

서류 접수는 2일부터 12일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 (<https://talent.hyundai.com>)에서 진행된다. 서류 합격자 발표는 3월 말이다.

면접 전형은 총 2개 차수로 진행되며 1차수는 4월부터 6월 초까지, 2차수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각각 실시된다.

각 차수별 1차 면접, 인적성검사, 2차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7월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입사 교육 등을 거쳐 9월에서 10월 중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롯데아울렛 월드컵점 '국립공원의 날' 팝업스토어

무등산 지정 10주년 기념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이 제3회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해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국립공원의 캐릭터 '반달이' 상품을 소개하는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1층 특설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특히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는 두 번



째로 진행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멸종 위기의 지리산 반달곰을 모티브로 한 국립공원공단의 대표 캐릭터인 '반달이'를 활용한 가방, 키링, 파우치, 키링 등 다양한 아이템과 무

등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의 21개 깃대종(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생물종) 캐릭터 배지 등이 판매된다. 또 국립공원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도 설치된다.

등산러들 사이에 인기템으로 품질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국립공원 캐릭터 상품은 이번 행사에서 1인당 구매가능 개수가 제한되며 하루 100개 한정수량 판매되는 토끼반달이는 색상별 1개로 구입이 제한되고 제품은 3개까지 구매 가능하다. 팝업스토어는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1층 정문광장에서 QR코드를 활용해 예약순서에 따라 입장 가능하다.

곽지혜 기자

재테크 칼럼

투자의 또 다른 절반, 상장지수펀드(ETF)

달러화(貨)는 강력한 기준통화이면서 금에 견줄 정도의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불황의 시대, 변동성이 커지면서 세계 도처에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달러를 갈망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행은 지난 달 23일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도 0.25% 포인트 더 벌어져 1.25%포인트로 늘어났다.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처럼 흐른다. 안 그래도 안전자산을 선

호하는 시대에 금리까지 격차가 커지고 있으니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이 가속화되고 원화의 약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환율 예측은 정치경제적으로 무수히 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예측 중 하나다. 강 달러가 계속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상황이 진행된다면 원화의 약세로 수입 물가는 상승하고 국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시켜 개인의 실질소득은 낮은자리에서 감소할 것은 자명한 일

이다. 한은도가계와 기업의 고충, 고물가 고환율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준다면 좋겠지만 그들도 코가 석자라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갈수 없는 고물가 시대에 월급을 물가 만큼이라도 올려주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친절한 회사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투자할 곳과 고금리 예금 등을 찾아나서 인플레이션을 차감시켜야 한다. 무점포 온라인 은행에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는 연리 7% 넘는 적금 상품도 있고 안목만 있다면 고환율에 유리한 일부 수출종목이나 불황에 상관없이 성장성이 담보된 주식에 투자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라는 파생상품을 통해서 금, 달러, 원자재 등의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 특정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지수연동형 펀드를 구성한 뒤 이를 주식처럼 매매하는 ETF는 거의 모든 자산에 투자가

가능할 만큼 다양하다. 자산의 상승뿐 아니라 하락(인버스)에도 투자할 수 있다. 본인의 개성에 맞게 투자의 영역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상당한 세월 동안 주식투자를 했던 사람도 의외로 ETF를 들어만 봤을뿐 투자 경험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ETF를 모른다면 투자의 절반밖에 모른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시름이 깊어가는 불황의 시대지만 투자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시장의 다양한 상품들을 이용한다면 위협적인 고물가와 불황을 피할 수 있다. 아무리 소나기가 강해도 모닥불을 뿜 수 있는 안전지대는 우리 곁에 항상 있다.